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찬미예수님!

지난 한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9월 순교자성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선조들은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고 신앙을 찾았고, 100여년의 박해를 이겨내며 피로써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앙선조들의 훌륭한 순교신앙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도록 합시다.

연중 제22주일에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회피하고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온갖 고초를 겪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유배 중에 있을 때 하느님 위로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였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야훼 하느님께 돌아오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비웃고 온갖 폭력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이 뺨속까지 스며있고 심장 속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온갖 시련 속에서도 예레미야 예언자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수난예고입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수난과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난 예고는 마태오 복음, 마르코 복음, 루카 복음에 똑같이 3번씩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씩 강조하셨다는 것은 그 만큼 예수님의 수난예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수난예고를 통해서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다보면 반드시 십자가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손해보고 내 것을 양보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도 사제 생활하면서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십자가를 안고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척, 이웃, 성당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이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마태 16,24-25)

갈전 본당 최승근 비오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며, 인간적인 유혹과 욕망에 타협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베드로를 단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따르는 길을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청하며, 이 전례에 참례합니다.

입당성가 : 48번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본기도

†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예레미야서 20장 7절-9절

안 내 : 예레미야 예언자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다.’고 하소연 합니다.

묵 상 :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롱과 놀림을 받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예언자의 뼈 속에 가두어진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게 하십니다.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통을 잘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화답송 :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제2독서 : 로마서 12장 1절-2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권고합니다.

묵 상 :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고, 현세에 동화되지 말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16장 21절-27절

강론 :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1-2쪽)

예물준비성가 : 511번 ‘미약하온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506번 ‘사랑으로 오신 주여’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서로 부딪칠 때
인간의 뜻은 걸림돌이 됩니다.

하느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것은
사탄의 모습입니다.

<침묵>

교회의 반석으로 선택된
베드로는 사람의 뜻과 일을 쫓다가
걸림돌이 되고 사탄이 됩니다.

<침묵>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디딤돌이 되고
주님의 길이 나에게 생명의 길이 되려면
우리는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느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7번 ‘형제여 손을 들어’

※ 공소사목 성금

| | | | |
|------|---------|-----|---------|
| 박기섭님 | 10,000원 | 김환님 | 50,000원 |
| 오광호님 | 50,000원 | | |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4,93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림

■ 하반기 주일학교 수녀모임

- 일시 : 9월 4일(월) 11:00 - 5일(화) 14:00
- 내용 : 영주·북부지구 성지순례
- 집결장소 : 11시 영주 휴천동 성당 (10시 20분 안동버스터미널)
- 준비물 : 세면도구, 운동화, 필기구, 개인시트
- 참가비 : 40,000원

■ 하반기 중고등부 회장단 모임

- 주제 : “발에 묻힌 보물”(마태 13,44)
- 일시 : 9월 10일(주일) 9:30 - 17:00
- 대상 : 본당 중·고등부 회장단
- 장소 : 교구청
- 준비물 : 주일미사 준비, 간편한 복장, 운동화
- 참가비 : 20,000원

■ 9월 예비신학생모임

- 일시 및 장소 :
9월 10일(주일) 12:00 (송현동본당)
안동·의성·북부·동해지구
- 9월 17일(주일) 12:00 (모전동본당)
상주·문경지구
- 문의 : 사목국으로(858-3114~5)

■ 순교자 현양 성가발표회

- 일시 : 9월 23일(토) 09:30 ~ 17:0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대강당
- 종목 : 1) 성가발표 : 합창 혹은 중창
지정곡(순교자 현양 성가 1곡)
자유곡(기타성가 1곡)
※ ‘가톨릭성가’ 외의 곡도 가능합니다.
- 2) 기타공연 : 악기연주, 춤, 연극, 콩트 등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동해지구)

- 과정 안내 : 매일 성경을 읽으며 영적 일기 쓰기. 격주로 모여 강의를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내면화하기.
- 연수 일정 : 9월 30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9월 30일/ 10월 14일/ 10월 28일/
11월 11일/ 11월 25일/ 12월 9일/
12월 23일/ 12월 30일 - 총 8회
- 장소 : 영해 성당
- 내용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동해지구)
(강의와 말씀 심화 프로그램)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주임)
- 대상 : 동해지구 신자
- 회비 : 1인 40,000원
(영적 일기 노트 비용 포함)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신청 : 9월 14일(목)까지 사목국

■ 레지오 마리아 평의회 간부 및 Pr. 단장 파견

- 일시 : 9월 3일(주일) 10:30 - 15:3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각 평의회 4간부 및 Pr. 단장
(해당자 불참시 대리 참석)
- 강사 : 이청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마산교구 가톨릭 교육관 신부)
- 제목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미사성제 안에서의 주님의 현존과 활동)
- 회비 : 1인당 10,000원
- 준비물 : ‘매일미사’ 책자, 목주, 활동 수첩, 미사 준비
- * 파견 후 주교님 집전 미사 있습니다.

■ 안동가톨릭문인회 시화전

- 일시 : 10월 21일(토) ~ 29일(주일)
- 장소 : 교구청

■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 청년 - 9월 9일(토) 14:00
청소녀 - 9월 10일(주일) 14:00
- 장소 : 서울 길음동 본원
- 문의 : 010-2310-2754, www.sjbp.or.kr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 9월 9일(토), 10일(주일) 14:00
- 장소 : 부산 부곡동 본원
- 문의 : 010-9319-1690

■ 2018학년도 목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 보건 복지교육계열 4년제 대학, 신입생 장학금 100%, 만족도 높은 쾌적한 최신 기숙사
- 모집인원 : 간호학과 76명, 사회복지학과 22명, 유아교육과 14명
- 원서접수 : 9월 11일~9월 15일까지
- 인터넷 원서접수처 : 유웨이
- 문의 : 061-280-5108, 5150

피조물을 돌보고 가꾸는 것은 삼위일체 신앙고백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2015년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종께서는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프란치스코 교종의 뜻에 따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의미를 묵상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가톨릭교회는 2000년 역사 안에서 언제나 삼위일체 하느님을 선포해 왔습니다. 삼위일체 신앙고백은 사랑이신 하느님의 존재방식이자, 피조물의 존재 모습이며,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삼위일체하느님은 피조물 안에 그리고 인간 안에서 새겨져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삼위께서 모든 실체 안에 그 표징을 남겨 두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 고유한 삼위일체적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239항). 세상은 삼위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를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경탄하며 관상할 때, 우리는 온전하신 삼위일체께 찬미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238항). 삼위일체의 거룩한 위격들은 실체적 관계이고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된 세상은 하나의 관계망입니다. 인간은 자신에서 벗어나 하느님, 이웃, 모든 피조물과 친교를 이루고 살면서 관계를 맺을수록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며 거룩해 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느님께서 그 내면에 새겨 주신 삼위일체의 역동성을 실현합니다(240항).

그리고 교종께서는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경의 본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이 땅에 대한 지배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이라는 정원을 일구고 돌보는 역할을 하느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입니다(67항). 모든 피조물은 각각의 목적을 갖고 있고,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세계 전체는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84항). 하느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무궁무진한 풍요로움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찬미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느님을 찬미해야 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로마 8,22) 있는 실정입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가뭄,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대량폐기를 반복하는 소비지향 생활습관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파괴의 첫 번째 피해자는 가난한 이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발전에 대하여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의 의미와 경제목표를 고찰하여 그 역기능과 오용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194항).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가난한 이들을 옹호하며 존중과 형제애의 관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201항).

삼위일체 신앙은 피조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단지 인간적 차원만이 아니라 하느님 차원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피조물을 파괴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훼손된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가닿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피조물을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종께서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한 시간 성체조배의 방식으로 거행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성체 앞에서 우리의 무관심과 욕심으로 파괴된 피조물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맡겨주신 피조물을 돌보고 가꾸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하기로 다짐합시다. 그리고 피조물을 가꾸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성숙과 완성을 이루도록 노력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도록 합시다.

2017년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 우 일 주교



이열치열(以熱治熱)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올여름도 무척이나 더웠다.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으니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긴급재난 문자를 수차례 받을 정도였다. 오존층의 파괴가 확대되고 있는지 더위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가끔씩 소나기가 내려 불볕더위를 식혀주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는 방법도 많이 변했다. 어려웠던 시절에는 부채 하나로 견뎠고 선풍기는 호사였다. 지금이야 성능 좋은 냉방기에다 여러 가지 보조장비까지 있어서 훨씬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다. 그런데도 부채만 가지고 지내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무덥고 힘든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타고난 체질 탓에 크게 더위를 타지 않고 살았다. 어지간해선 땀도 흘리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더위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달혀있던 땀구멍이 열렸는지 땀도 많이 났다. 어느새 여름이면 누구보다도 먼저 시원한 곳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던 내가 올여름은 이열치열하며 보냈다. 원하지 않던 백수가 되었지만 마음까지 늘어지기는 싫어서 조금은 무모한 방법으로 더위와 맞섰다. 제일 덥다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를 운동시간으로 정했다. 가능한 활동을 자제하라는 시간이었지만 작정하고 운동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렸다. 운동을 시작하면 10분도 지나지 않아 땀이 나기 시작한다. 30분이 지나면 숨이 턱턱 막히고 어지러울 정도다. 땀은 비 오듯 흘러서 몸을 적시고 눈앞을 가린다. 그때쯤이면 자리에 앉아 물을 마시며 잠깐의 휴식을 취한다. 긴 휴식은 오히려 운동에 방해가 된다. 다시 30분을 운동하고 쉬는 것을 세 번쯤 반복하면 두 시간이 지나간다. 온 몸은 땀으로 흠뻑 젖지만 운동 후의 만족감은 배가 된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피곤한 몸을 거실에 누인다. 땀 흘린 뒤의 휴식은 더없이 달콤하다. 더위는 간데없고 대자리의 시원함이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잠깐의 오수는 덤이다. 이런 매력 때문에 힘들지만 운동을 계속하게 된다.

병법 중에 정공법이란 것이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열치열은 병법으로 치면 정공법에 해당한다. 더위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땀을 흘리는 것이다. 무식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해보니 매우 효과적인 피서법이다. 효율적인 시간의 활용을 위해서도 좋다. 어차피 집에 있어도 너무 더워서 쉬어야 할 시간이다. 그 시간에 운동을 하면 건강도 지키고, 아침저녁 시원한 때에는 정신집중을 요하는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일석이조다.

뜨거웠던 여름을 운동하며 지내고 나니 훨씬 건강해진 느낌이다. 몸도 가볍고 마음도 젊어진 것 같다. 위축되었던 자신감도 다시 살아났다.

살다보면 때로는 큰 어려움과 만나게 된다.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온 몸으로 막아야 할 때도 있다. 내게도 지난 3년은 혹독한 시련기였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다.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맞서서 부대끼다보면 적응하게 되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된다. 그렇게 무심한 세월은 흐른다. 한번쯤은 용감하게 정공법으로 부딪혀 볼 일이다.

입추 처서가 지나니 기세등등하던 폭염도 한 풀 꺾였다. 자연의 순리는 거부할 수 없다. 지독한 더위와 함께했으니 올 농사는 풍년일 것이다. 내 인생의 가을도 풍년이 있으면 좋겠다. 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